

2019

# ISSUE BRIEFING

연구진

오병록\_지역개발연구부 부연구위원

이서묘포장,  
대도약을 위한 전북의 랜드마크로!

## CONTENTS

I. 왜 이서묘포장인가?	02
II. 사례 검토	04
III. 활용 방향	09
IV. 정책제언	14

## I. 왜 이서묘포장인가?

### 1. 전북대도약의 추진

- 전라북도는 취약한 성장기반과 지역 불균형 심화 등 전북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정책과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대도약을 모색하고 있음
- 정책 진화와 혁신 성장을 통해 전북이 새로운 시대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반 구축(Hardware), 사회적 역량 강화(Humanware), 혁신성장 위한 발상의 전환(Software)이라는 3가지 전략을 추진 중임
- 대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약의 발판이 될 물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내발적 성장 기반으로서 도가 보유한 자원의 활용이 중요함

### 2. 이서묘포장 현황 및 입지 특성

- 약 20만m<sup>2</sup>의 면적 규모를 가진 이서묘포장은 소유자가 전북도이고, 양묘사업, 묘목 생산 및 공급, 나무 종자 및 병해충 시험 연구 기능을 수행해 옴
- 최근, 유실수와 조경수 묘목의 생산·보급 기능이 민간으로 이전하는 추세에 따라 묘포장의 기능이 쇠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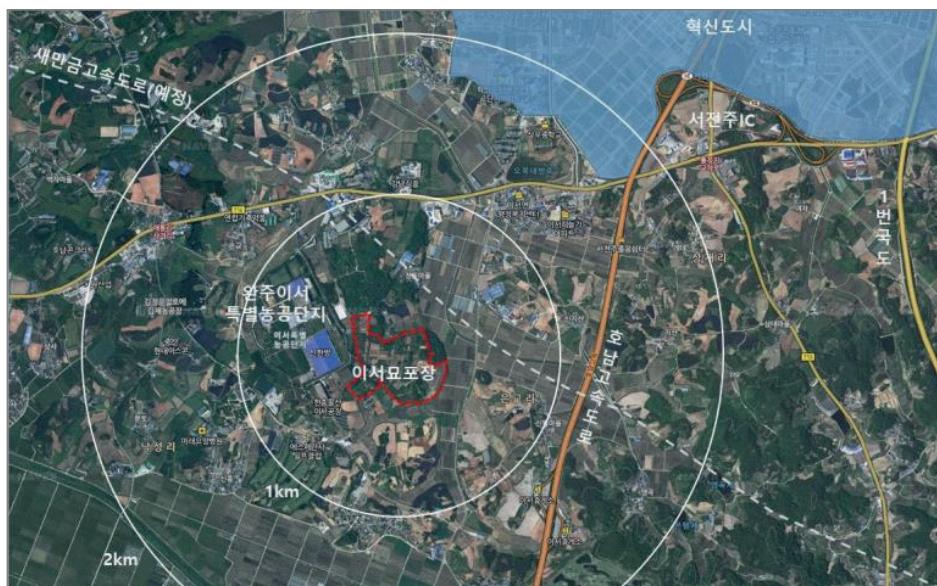
〈이서묘포장 현황〉

구분	내용
위 치	완주군 이서면 낙산로 133-84
면 적	208,487m <sup>2</sup>
소 유 자	전라북도
기 능	유실수, 특용수, 밀원수 등 우수 임목육종 시험연구 및 생산 - 양묘사업 : 파종묘 37,500본, 접목묘 10,130본, 삽목 1,300본 - 무궁화 시험포 조성 : 5품종 500본(신품종2, 출원1, 선발품종2) - 산사나무 병해충 시험연구 : 산사나무붉은별무늬병 100주 - 대립종자 참나무지역적응시험 : 상수리 4종, 굴참 3종 6,219천본 - 특색 있는 임목육성을 위한 묘목 생산 : 비타민, 칼슘나무 등 8종 4천본 - 왕방울 은행나무 생산 보급
기존 주요사업	- 1973~1980 : 산지 조림용 묘목 생산 및 공급 - 1981~1990 : 유망 유실수 생산 및 공급 - 1991~현재 : 유실수와 조경수의 생산 및 공급
묘포장 기능 변화	

\*자료 : 도청 내부자료 정리

# 이서묘포장, 대도약을 위한 전북의 랜드마크로!

- 이서묘포장은 전북혁신도시까지 최근접거리 1.5km, 전북도청에서 8km 거리에 입지하며, 주변에 새만금고속도로가 건설 중이고, 호남고속도로 서전주IC와 1번국도 입구가 가까워 광역 교통 조건이 우수



\*지도자료 : 다음 카카오맵(map.kakao.com) 위에 위치정보 수정 편집

〈이서묘포장 입지〉

## 3. 활용 잠재력

### ◎ 묘포장 잠재력

- 이서묘포장은 도유지로서 부지 이용을 위해 별도의 토지 수용 및 협의 절차 없이 전라북도 정책 결정에 따라 신속한 개발이 가능
- 유실수와 조경수 등 다양한 묘목을 생산하여 보급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수종은 활용 가능한 훌륭한 자원이 됨
- 면적규모가 20만m<sup>2</sup>에 이르므로 부지의 이용면에서 기능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공간 구성이 가능하여 활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 입지 잠재력

- 이서묘포장은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전북의 발전을 위해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선제적인 계획적 개발과 관리가 요구됨
- 인근에 혁신도시와 인구 65만 명 이상의 전주뿐만 아니라 속도감 있게 개발 중인 새만금으로부터 충분한 잠재 방문객 확보가 가능
- 새만금까지 약 30분에 접근이 가능한 새만금고속도로가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에 맞춰 조기 개통을 목표로 이서묘포장 가까이 건설 중이고, 호남고속도로와 교차하는 분기점이 가깝게 예정되어 있어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교통 접근성이 우수

## 4. 전북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혁신 공간 재생

- 이서묘포장은 묘목의 생산과 공급 기능이 쇠퇴함에 따라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여 유휴 공유 자산 활용도를 제고해야 함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 및 전주의 새로운 중심지인 서부신시가지와 함께 전북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견인할 새로운 혁신 공간 조성이 필요
- 사회구조 변화와 여가 향유 욕구 상승에 대응하여 전북 도민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랜드마크 조성으로 전북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서묘포장의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어야 함

## II. 사례 검토

### 1. 가든스 바이 더 베이(Gardens by the Bay)<sup>1)</sup>

- 위치 : 싱가포르 마리나가든드라이브 18
- 특징 : 도심 속 인공공원으로서 태양열 전지로부터 필요한 동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게 계획하여 미래 에너지 산업뿐만 아니라 수목 보전의 교육적인 면을 강조
- 면적 : 320,000m<sup>2</sup>      • 조성기간 : 2007 ~ 2012년
- 주요시설 : 플라워돔(온실), 클라우드 포레스트(폭포), 슈퍼트리 그로브(야외 조형물)

1) 배준식(2017) 참조

# 이서묘포장, 대도약을 위한 전북의 랜드마크로!

- 싱가포르의 매립지에 조성한 가든스 바이 더 베이는 국립공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된 도시정원임
- 수변과 도심을 연결하여 국민들의 여가 활동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연간 입장객이 약 170만 명에 이르고 그 중의 60%가 관광객)
- 원예업 종사자 100여 명을 포함하여 전체 직원 300~400명이 근무



\*출처 : <https://www.gardensbythebay.com.sg>

〈가든스 바이 더 베이〉

## 2. 에덴 프로젝트(Eden Project)<sup>2)</sup>

- 위 치 : 영국 성오스텔
- 특 징 : 고령토 폐광산을 생태문화공간으로 재생한 세계에서 가장 큰 온실
- 면 적 : 23만m<sup>2</sup>(6만9천평)
- 사 업 비 : 8천5백만달러
- 주요시설 : Rainforest Biome(열대우림식물), Mediterranean Biome(온대식물), 야외 식물전시장

- 영국의 에덴 프로젝트는 폐광산을 대형 온실로 재생한 프로젝트로서 밀레니엄 재단, 기부금, 민간 응자 등을 통해 비용을 조달하였고, 1997년에 설립된 에덴재단이 운영 중임

2) 추용욱·이원학(2016) 참고

- 2001~2006년까지 약 826만 명이 방문하여 1조 3천억 원의 경제효과와 약 1,7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전체 인력 중 75% 이상이 지역주민)



\*출처 : <https://www.edenproject.com/>

〈에덴 프로젝트〉

### 3. 아케보노야마 농업 공원(あけぼの山農業公園)<sup>3)</sup>

- 위치 : 일본 치바현 카시와시(千葉県 柏市)
- 특징 : 벚꽃 명소로서 수생 식물원, 풍차, 사계절의 꽃(튤립, 해바라기, 코스모스) 관람 가능
- 면적 : 5.8만m<sup>2</sup>
- 주요시설 : 일본 정원 다실, 풍차, 수생 식물원, 복합 놀이, 잔디 광장, 벚꽃 산

- 일본의 아케보노야마 농업 공원은 공원 내에서 바베큐와 육상경기도 즐기고 풍차와 사계절 꽃들을 감상할 수 있는 공원으로서 인근 농가에서 벼베기, 감자와 고구마 캐기 등 체험이 가능<sup>4)</sup>
- 일본 북부 지역 최대의 도농 교류 시설로서 연간 50만 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가져옴<sup>5)</sup>



\*출처 : <http://www.city.kashiwa.lg.jp/soshiki/110900/p002517.html> 2019.6.13. 접속

〈아케보노야마 농업공원 내 풍차와 튤립(좌), 수생식물원(우)〉

3) 카시와시(柏市) 사이트(<http://www.city.kashiwa.lg.jp/soshiki/110900/p002517.html>) 2019.6.13. 접속

4) <http://jmake.com/board/19562>

5) 柏市農政課(2015)

# 이서묘포장, 대도약을 위한 전북의 랜드마크로!

## 4. 장난감왕국(おもちゃ王国)<sup>6)</sup>

- 위치 : 일본 오카야마현 타마노시(岡山県 玉野市)
- 특징 : 세계의 모든 장난감을 모은 완구박물관을 겸한 유원지. 일본 전역에 테마파크형과 도심체험형으로 구분된 7개의 '장난감왕국' 운영 중임
- 설치지역 : 오카야마현 타마노시를 비롯하여 군마현 가루이자와, 효고현 도조코, 오이타현 키지마, 도쿄, 가카와현 레오마, 아이치현 미나미치타 지역 등에 설치되었고, 각각 주변 지역과 어울리도록 차별화
- 주요시설 : 장난감시설, 놀이동산, 레스토랑, 쇼핑센터

- 일본 장난감왕국은 놀이공원 성격의 유원지로서 폐관한 테마파크를 재활용하여 초기 비용 최소화하였고, 테마마크형과 도심체험형 등 7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하여 운영
- 키덜트 문화가 부상함에 따라 최신의 장난감에서부터 오래된 장난감까지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도록 구성
- 카토시(加東市)에 있는 도죠코장난감왕국(東条湖おもちゃ王国)에만 2014년에 46만 명, 2015년에 50만 명 방문<sup>7)</sup>



\*출처 : <http://www.omochaoukoku.co.jp/> 2019.6.17. 접속

<장난감왕국 맵(좌), 왕의 성, 모래밭(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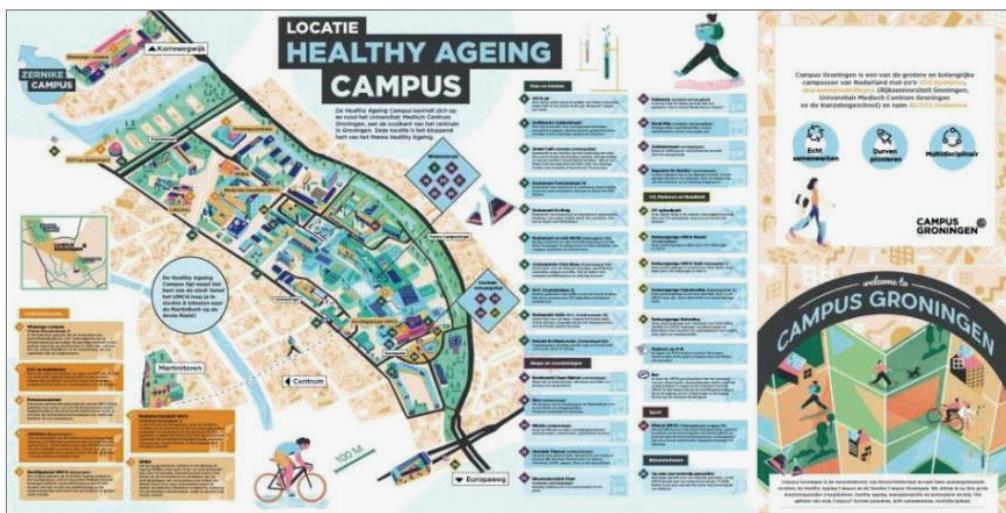
6) 장난감왕국 사이트(<http://www.omochaoukoku.co.jp/>),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http://www.kocca.kr))

7) [www.pref.osaka.lg.jp/attach/29398/00238759/siryou3\\_3.pdf](http://www.pref.osaka.lg.jp/attach/29398/00238759/siryou3_3.pdf)

## 5. 헬씨 에이징 캠퍼스(Healthy Ageing Campus)<sup>8)</sup>

- 위치 : 네델란드 흐로닝언(Groningen)
- 특징 : 병원, 연구소, 기업, 대학 등이 협력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주요시설 : 병원(UMCG), 연구소(LifeLines, ERIBA 등), 기업(HANNN), 대학(흐로닝언 대학) 등

- 네델란드 Healthy Ageing Campus는 건강·장수를 위한 병원, 연구소, 기업, 대학 등 관련 시설의 복합 단지임
- LifeLines(연구소)에서는 167,000여 명의 건강 정보로 만성 질환의 예방과 진단,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ERIBA는 LifeLines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노화 원인과 조직 기능 감퇴 등 연구를 연계 진행
- UMCG(병원)에서는 연구와 임상 시험을 통해 항노화 관련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흐로닝언 대학교에서는 의료 인력을 양성
- HANNN(기업)은 혁신을 창출하고 새로운 수요에 대한 기업 간 네트워크를 형성
- 네델란드에서는 과학과 산업의 연결이 혁신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들의 협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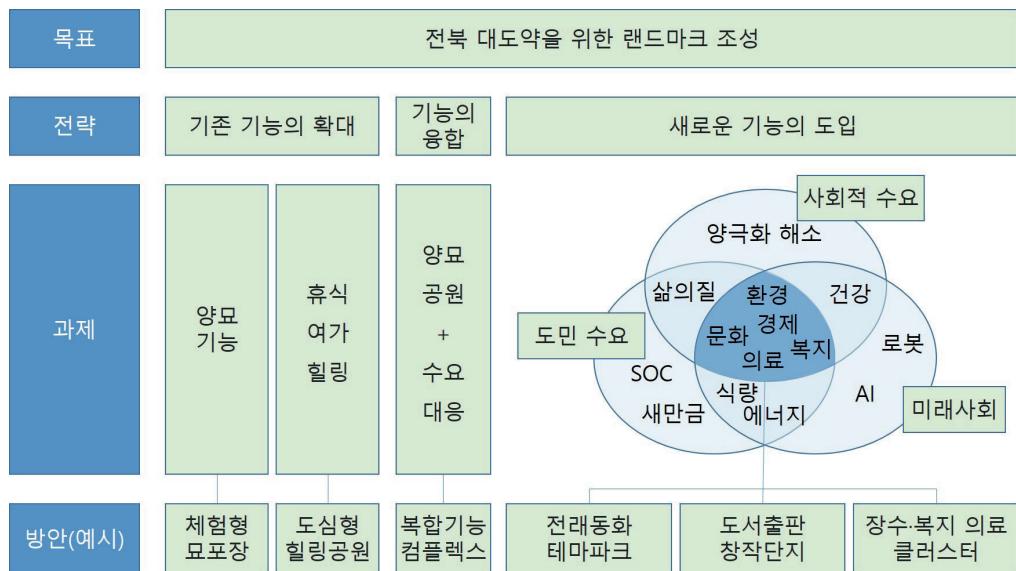
\*출처 : Campus Groningen(campus.groningen.nl) 2019.6.24. 접속

〈Healthy Ageing Campus〉

8) 이승재(2015),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4)

# 이서묘포장, 대도약을 위한 전북의 랜드마크로!

## III. 활용 방향



### 1. 기존 기능의 확대

#### ◎ 묘포장 기능의 전환 및 확대 활용 : 체험형 애완식물 육묘장

- 이서묘포장에는 성묘(成苗)와 유묘(幼苗)를 포함하여 총 127개 수종, 127,649본의 수목을 보유(2018.12.31. 현재)

구분	합 계		성 묘		유 묘	
	수종	본수	수종	본수	수종	본수
총보유량	127	127,649	101	116,822	37	10,827

\* 자료 : 도청 내부자료

- 이태리포플러 등 6개 종 5,214본의 채수포<sup>9)</sup>를 보유

구분	합계 (6종)	채 수 포					
		떫은감 (대봉)	왕방울은행	호두 (무풍)	대추 (복조)	매실 (청죽)	이태리포풀러
본 수(본)	5,214	95	145	21	182	41	4,730
면적(m <sup>2</sup> )	15,320	720	1,500	300	2,300	500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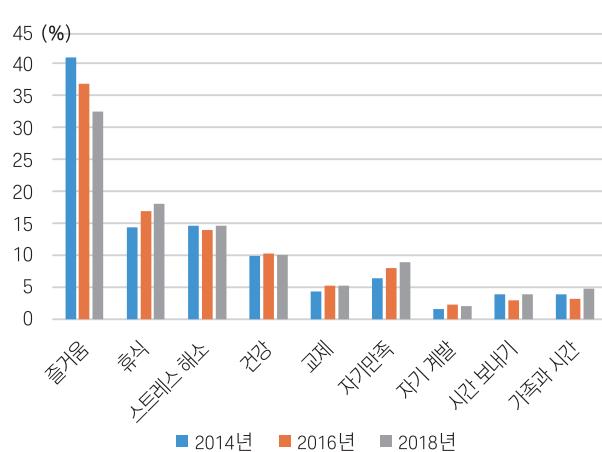
\* 자료 : 도청 내부자료

9) 채수포(採穗圃) : 꺽꽂이 · 접목 등 영양번식을 위한 유전자의 채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출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기존 묘목과 묘포장 본래의 기능을 발전시켜 체험형 애완식물 육묘장으로 조성
  - 묘목 생산 및 공급의 기능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묘목과 채수포 등 활용 가능한 수목 자원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기능과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묘목을 개별 분양하거나 직접 심고 가꾸며 함께 커가는 경험을 제공하는 체험형 육묘장으로 활용
- 개인 기념식수 묘포장으로서 일정 기간 가꾸어, 새만금 녹화 계획에 따른 방재림 조성시에 필 요한 수목을 개인 자격으로 기부 또는 판매

## ◎ 수목 자원 활용 : 도심형 힐링 공원

- 사회적 스트레스와 환경적인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휴식과 회복, 그리고 여가 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
  - 자연 산천에서의 활동에 적극 몰입할수록 스트레스와 갈등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이종열·이형룡, 2018) 산과 생활권 공원의 여가 공간 이용을 희망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음(문화체육관광부, 2018)
- 현대인의 수요가 높은 자연 공간을 조성하여 복잡하고 삭막한 도시를 벗어나 꽃과 나무, 흙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천연의 자연 환경을 조성하되, 장거리 이동이 필요치 않은 도심형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여 누구에게나 높은 접근성 제공
- 산림 치유, 세계 전통 정원, 희귀 식물, 모든 세대가 이용 가능한 자연태교·자연놀이터·자연휴식·자연치유 등 다채로운 테마로 구성



구분	2014년	2016년	2018년
개인의 즐거움	41.1	37.1	32.5
마음의 안정과 휴식	14.4	16.9	18.2
스트레스 해소	14.7	14	14.7
건강을 위해	9.7	10.3	10.1
대인관계·교제	4.4	5.2	5.1
자기만족	6.3	8	8.8
자기 계발	1.5	2.3	2
시간을 보내기	3.9	3	3.8
가족과 시간을 함께하기	3.8	3.2	4.7
기타	0	0	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8,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연도별 여가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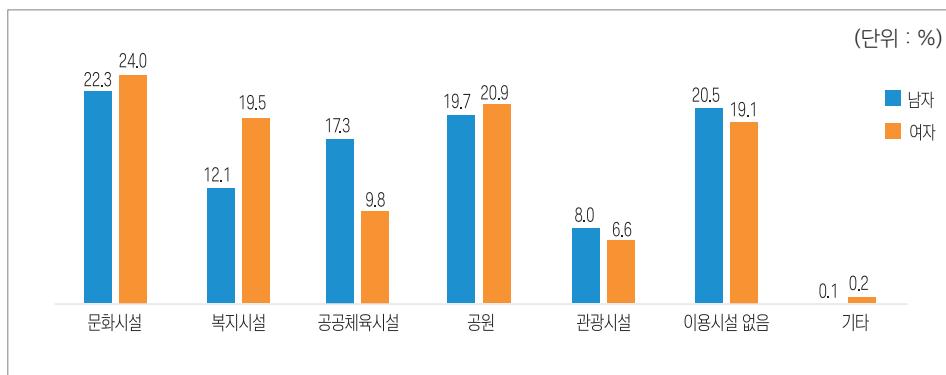
# 이서묘포장, 대도약을 위한 전북의 랜드마크로!

## 2. 새로운 기능의 도입

### ◎ 문화 수요에 대응 : 전래동화 테마파크

- 전북 도민은 문화 관련 여가 수요가 높음

- 2018년 전라북도 사회조사의 '지난 1년간 여가 이용시설' 질문 항목에서 문화 시설이 23.2%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공연 관람 지원이라고 응답되었으며 영화 관람 기회 확대, 문학 강좌 개설의 순으로 나타남



\*출처 : 전라북도, 2018, 193쪽

〈여가 이용시설〉

- 전라북도는 한옥마을 등 전통 문화를 도정 주요 가치로 설정하고 있고, 이서묘포장 인근의 콩쥐팥쥐 마을과 이서묘포장 북측 716번 지방도인 콩쥐팥쥐로 등 문화적 입지 특성을 반영하여 전통 문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세계전래동화 테마 공원'이 재생 대안으로 가능

- 한국아동문학인협회 김관식 이사는 '전통 문화 체험 테마파크 동화 마을 조성'을 주장하였고<sup>10)</sup>, 일자리 만들기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아시아 전래동화 테마파크'가 대상을 수상<sup>11)</sup>.

- 2016년부터 계속적인 축제 행사로 추진되는 한국민속촌의 '조선동화실록'은 전래동화를 뮤지컬 형식의 마당극으로 재해석하여 공연되고 있음



출처 : 한국민속촌(<http://www.koreanfolk.co.kr>) 보도자료 2019.6.20. 접속

〈한국민속촌 전래동화축제〉

10) <http://cafe.daum.net/kaocw/LTE4/3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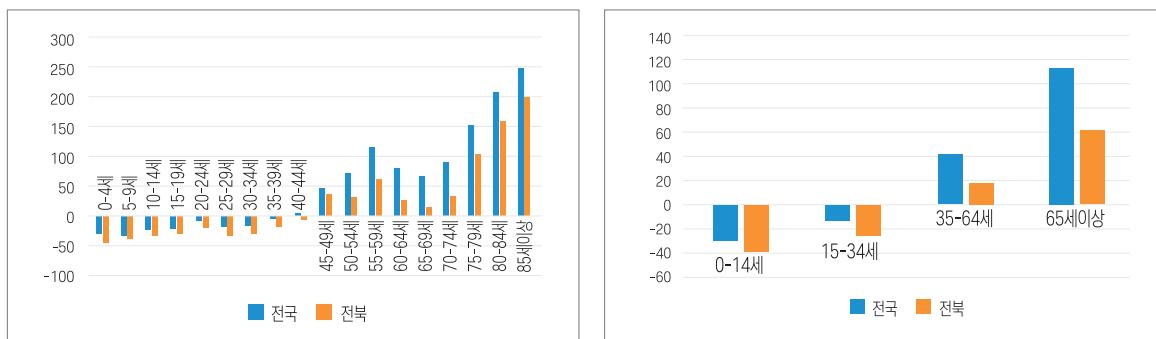
11)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0082450291>

- 책을 통해 알고 있는 세계 주요국가 전래동화를 스토리 전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보는 동화가 아닌 직접 체험하는 이야기 공간으로 조성

## ◎ 문화를 통한 경제 활력 및 일자리 창출 : K-Book City

-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화 산업 육성이 필요

- 전북은 2015년 이후 낮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면서 최근 10년간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경제적 쇠퇴 상황임
- 또한, 2000년대 이후 가파른 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특히 저출산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청년 인구의 감소가 큰 영향인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화 산업 육성이 필요



\*자료 : 통계청(kosis.kr) 인구총조사(2000, 2017)

〈연령별 인구 변화(2000~2017, %)〉

- 남부 지방의 출판과 인쇄 중심의 산업 클러스터로서 ‘책 도시(Book City)’ 조성

- 책은 인류 지식의 보고이자 아이들의 교육 자료로서 독서는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는 바, 전북은 세계기록유산인 조선 왕조 실록을 보관한 전주사고와 혁신도시 내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자리하고 있어 우리나라 기록 문화의 중심지임
- 인쇄와 출판으로 약 1조 7,000억 원의 매출과 1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파주 출판단지는 문발제 폐천 부지에 조성된 우리나라 중부 지방의 출판문화 산업 클러스터임<sup>12)</sup>

- 출판·인쇄 및 디자인 블록, 1인 출판 창업 블록, 출판·인쇄 전시 블록, 출판·인쇄 체험 블록, 도서 전시 및 판매 블록, 책 이야기 마당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



\*출처 : 출판도시문화재단, 「Paju Bookcity & Bookcity Culture Foundation」, 10쪽

12) 출판도시문화재단, 「Paju Bookcity & Bookcity Culture Foundation」, 7쪽

〈파주 출판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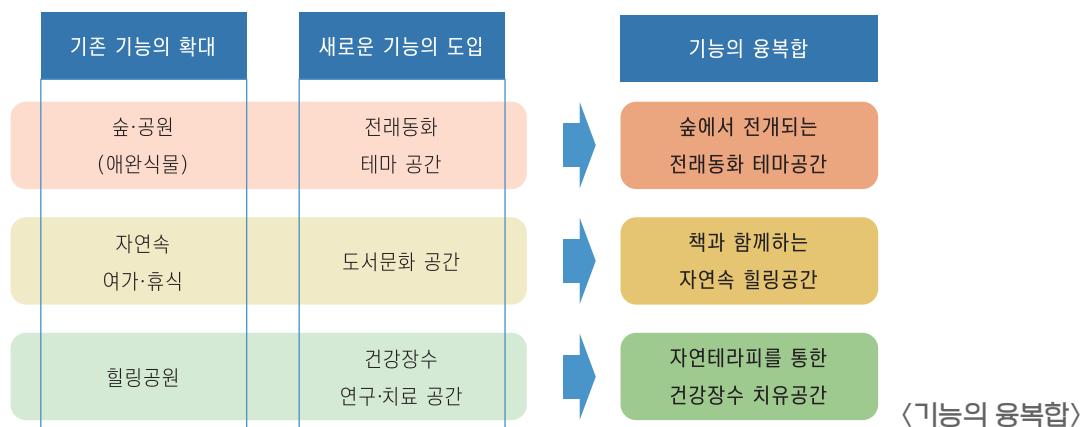
# 이서묘포장, 대도약을 위한 전북의 랜드마크로!

## ◎ 의료·복지 서비스 공급 : 장수·복지 의료 클러스터

- 고령화에 따라 미래 사회에는 실버 산업과 함께 의료 산업의 발전이 예상되고 있고, 단순 기술적 의료 서비스가 아닌 복지 서비스로의 접근 필요
  - 전북의 고령화율은 2018년 19.5%로 전남 21.9%, 경북 19.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음<sup>13)</sup>
  - 첨단 의료 복합 단지가 현재는 대구·경북과 오송에 각각 합성 신약, IT기반 의료 기기와 바이오 신약, BT 기반 의료 기기로 특화되어 조성
  - 고령화라는 사회적 요구와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요구에서 전북에 건강·장수와 실버 복지를 위한 의료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함
- 건강·장수를 위한 항노화 전문 병원, 연구소, 기업과 함께 실버 산업 및 실버 복지 시설과 정신적·심리적 치유와 회복을 위한 자연 공간이 통합된, 건강·장수와 고령자 복지를 위한 종합 클러스터로 조성

## 3. 기능의 융복합

- 상호 유기적 관계를 갖는 여러 기능들을 하나의 공간에 통합하여 조성함으로써 기능간 융복합적 시너지 효과 발현 유도
- 기존 이서묘포장의 자원을 활용하되 새로운 수요에 맞도록 리모델링하고, 융복합 기능을 공간적으로 통합하여 구성함으로써 도민 수요에 고차적으로 대응
- 숲에서 전개되는 전래 동화 테마 공간 조성, 자연 속에서 책과 함께 하는 여가 힐링 공간 조성, 자연테라피를 통한 건강·장수 치료 연구와 치유 등 여러 기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융복합 공간으로 조성



13) 자료 : 통계청(kosis.kr) > 국내통계 > e-지방지표(통계표) > 주제별 > 인구 > 고령인구비율, 2019.6.24. 접속

## IV. 정책 제언

### 1. 도내 유휴 국공유 재산의 연계 활용

- 도내 약 9만 6천 여 개의 국공유 일반재산 중 일부가 기존 이용의 종료나 규모 또는 지형적 특성 등의 이유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바, 토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활용 방안의 모색 필요
- 도내의 유휴 국공유 일반재산 중 활용 잠재력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는 도민 수요를 반영한 도민 이용 시설로 조성
- 유휴 국공유 일반재산 중 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부지에 대해서도 활용 가능성이 있는 부지들은 입지적 장점을 고려한 상호 연계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상호연계 활용되는 유휴 부지의 소유 주체가 다수의 시군일 경우에는 상호 협력적 시설 관리 체계 구축

### 2. 민간 자본 참여 위한 인센티브 발굴

- 민간이 보유한 자본과 기술 및 경영 노하우는 자원의 이용과 활용 측면에서 공공보다 많은 우위를 가지고 있고, 민간 활력은 더 효율적인 자원의 이용과 공간의 경영을 통해 한정된 자원의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속적 이용 수요를 창출하는 장점 보유
- 현재 도내 국공유 일반재산 중 6,698개 부지가 민간에 대부(임대) 중이거나 예정으로서 상당한 토지가 이미 민간이 이용
- 국공유지의 무상 임대, BTL, BTO 등의 민간 개발 방식을 통하여 도민에 필요한 시설을 유치하면서도 민간 사업자도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기능의 도입과 인센티브의 발굴 및 제공 모색 필요
- 민간 자본과 전북개발공사가 공동 개발을 통해 공익과 사익의 조화 방식도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에 의하면, 생활권 내에 있는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여가 공간을 조성하여 여가 접근성을 확대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국공유지 활용 사업에 민간의 기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 중인 인센티브 이용 가능할 것임

# 이서묘포장, 대도약을 위한 전북의 랜드마크로!

## 3. 국책사업으로 발굴된 사업과 연계 추진

- 앞서 묘포장 기능의 확대와 문화를 통한 경제활력 측면에서 제안한 내용과 일맥상통한 사업 내용으로 전북연구원에서 '국가스마트육묘단지 조성'과 'K-Book 복합문화타운 조성'을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발굴
- 기 발굴된 국책사업의 사업 위치 선정에서 활용 방안, 자체 장점, 주변 입지 특성 등 개발 잠재력을 가진 이서묘포장을 우선적으로 고려

## 4.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협력 추진

- 이서묘포장이 혁신도시와 가까이 입지하고 있으므로 전북 혁신 성장의 거점으로 조성된 혁신도시의 정주 환경 개선과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기여 차원에서 이전공공기관과 협력하거나 공동으로 개발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특작과학원은 농작물과 수목 등과 관련한 연구성과와 실무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공원 및 수목원 조성, 화훼 단지 등 농업 경관 조성, 힐링 공간 조성 등의 역량을 보유
- 또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다양한 출판 인쇄 기술과 서적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서적 관련 문화 공간 만들기에 함께 참여 가능
-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참여와 협력은 혁신도시가 가진 공공 자원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참고문헌>

- 문화체육관광부, 2018,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배준식, 2017, “서울식물원, 공공자금으로 안정 운영 후 다양한 재원발굴로 재정자립도 높여야”, SOLUTIONPAPER, 서울연구원  
이승재, 2015, “해외 선진사례 소개를 통한 국내 항노화 클러스터 고찰”, 보건산업브리프 Vol.20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종열·이형룡, 2018, “자연 친화적 여가활동이 현대인의 삶에 미치는 의미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제42권 제10호(통권166호), 한국관광학회  
추용욱·이원학, 2016, “영국 남부 폐광지역 재생사례와 강원도 시사점”, 「정책메모」 제556호, 강원발전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글로벌 선도산업 창출을 위한 항노화산업 실태 조사·분석 및 활성화 방안」  
柏市農政課, 2015, 「柏市都市農業活性化計画 概要版」  
일본 장난감왕국 사이트(<http://www.omochaoukoku.co.jp/>)  
일본 카시와시 사이트(<http://www.city.kashiwa.lg.jp>)



ISSUE BRIEFING  
2019. 07.24 Vol. 201

**jthink**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흥취팔住址 1696 Tel 063-280-7100 Fax 063-286-9206

발행인\_김선기

발행처\_전북연구원

\*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http://www.jthink.kr))에서도 볼수 있습니다.